

A. 주제(Thesis).

- 성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거룩한 경전이며, 신성한 이야기이다.
- 한 마디로, 성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정체성의 표지이다.

B. 문제점(Problems).

- 과거 패러다임 속의 성서 이해의 틀, 곧 성서 문자주의가 주장하는 무오설(biblical infallibility), 역사적 사실성(historical factuality)은 현대인들에게 걸림돌=>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.
- 새로운 패러다임은 성서 문자주의에 대안적 이해를 제공한다.

C. 논점(Argumentation).

1. 역사적(historical) 이해

- 성서는 고대 이스라엘(구약)과 초기 기독교 운동(신약)이라는 두 개의 역사적 공동체의 산물.
- 인간의 산물로서, 성서는 '상대적' '문화적' 조건 속에서 태어났다. '상대적'(relative)은 "관계적"(related)이라는 말로, 시간과 장소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다.
- 성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과거 패러다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의문을 해소한다.

2. 은유적 이해

- "은유"(metaphor)는 문자적 의미 이상(more than literal meaning)을 뜻한다.
 - 성서 언어의 상당 부분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. 예, 하느님의 대한 인간적 표현(손, 발, 눈..)
 - 성서는 역사적 기억(historical memory)과 은유적 이야기(metaphorical narrative) 모두를 담고 있다. 전혀 역사적 사실성과 무관한 이야기도 있다=> 창세기 1 장-11 장.
- 다리 역할로서 은유
 - 보수적 기독교 설교자들도 성서의 '문자적 의미 이상', '역사적 의미 이상'을 강조한다.
 - 오순절 교회의 예, (마가복음 2 장, "일어나서 네 자리를 건너서 걸어가거라")
 - 침례 교회의 예, "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(The tomb was empty)."

3. 성례전적 이해

- 성서의 일차적 기능은 '거룩함을 전달해 주는 눈에 보이는 매개체'라는 점=> 은총의 수단/매개체.
- Lectio Divina, divine reading=> 읽기 목상의 반복
- 개신교의 두 개의 대표적인 성례전: 말씀(Word)과 성찬(Communion)/성만찬(Lord's Supper).

D. 평가(Critique) 및 생각해 보기

- 성서와 하느님,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다. 우리는 '아무런'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서가 말/증거하는 그 하느님을 믿는다. 고로 성서 이해는 우리 정체성의 근본(심장)이다.
- 성서의 역사성과 관련해, 성서 언어 이해, 사본(manuscripts)과 번역본(versions)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.